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문화관 (73동) 통일평화연구소 Homepage: <http://tongil.snu.ac.kr>
Tel: 02) 880-4052-4 Fax: 02) 874-7305 E-mail: tongil@snu.ac.kr 발행인: 박명규 편집: 한준성·한경은

통일평화연구소 2010년 상반기 주요활동

‘녹색평화’의 개념을 21세기 한반도 비전으로 제시

21세기 한국 발전의 핵심가치로서 ‘녹색평화’에 기초한 통일한반도 구현과 이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 대원칙 견지, 녹색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 녹색지향적 남북경제교류, 인도주의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남북통합지수(IKII), 통일의식조사 분석

2009남북통합지수의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학술회의를 통해 남북통합지수의 3년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또한 2010통일의식조사 결과도 9월 7일 개최되는 학술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임.

박명규 교수, 통일평화연구소 3대 소장으로 재연임

김병연 교수, 통일평화연구소 부소장으로 임명

통일평화연구소의 초대, 2대 소장을 역임한 박명규 교수는 2010.4.20자로 동 연구소 제3대 소장으로 재연임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는 통일평화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임명되었음.

새로운 통일론 구상: 『연성복합통일론』 출간

21세기 현재의 상황에서 통일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사고의 틀, 관점의 문제를 새롭게 다듬음으로써 정책적 유연성과 구체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연성복합통일론』을 발간, 보다 유연하고 다원적인 형태의 새로운 통일론을 제시함.

2010년 통일학·평화학 기초연구지원 과제선정

통일평화연구소는 2010년 통일학·평화학 기초연구지원사업으로 총 16개 과제를 선정함. 기획/자유과제로 “민족통일과 다문화사회의 문제”(인문대 최윤영 교수) 외 11과제, 논문지원과제로 “Japan’s Grand Strategy and the Two Koreas”(히로시마 평화대학 김성철 교수) 외 5과제를 선정함.

『통일과 평화』 제2권 1호(통권 3호) 출간

『통일과 평화』 제2집 1호는 ‘녹색평화’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경협 등을 고찰한 특집논문들을 싣고 있음. 이를 통해 최근 녹색평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녹색평화 개념이 한국사회의 유용한 이론적 기반이 되는데 학술적인 기여를 함.

연구소 창립 4주년 기념학술회의 ‘녹색평화’의 비전과 21세기 한반도



연구소 창립4주년을 기념하여 4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녹색평화의 비전과 21세기 한반도’를 대주제로 하여 6개 소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소주제 발표에 앞서 본 연구소 박명규 소장은 ‘한반도 녹색평화의 비전과 구상’이라는 제언을 통해 21세기 한국 발전의 핵심가치는 ‘녹색평화’에 기초한 통일한반도 구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 대원칙 견지, 녹색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 녹색지향적 남북경제교류, 인도주의적 협력을 적극 도모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은 본 행사의 의의에 대하여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북한



산림녹화사업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제1세션 ‘녹색평화의 인문학적 상상력’에서는 김용민 교수(연세대학교), 영담 스님(조계종 총무원), 한면희 교수(전북대학교 쌀·삶·문화연구원)가 각기 녹색평화와 문학, 종교와 한반도의 녹색평화, 생태평화와 문화 공동체의 실천적 원리라는 소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김용민 교수는 발표에서 한반도 통일을 이루되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 또한 필요하며, 한반도 통일의 방식과 통일한 국 사회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영담스님은 종교가 녹색평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유호한 상관성을 가질 수 있는가 질문하면서 종교의 실체, 종교의 개념,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 종교의 미래 가능성 등을 제시하므로 녹색평화 구현에 종교가 자양분이 되고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면희 교수는 사회적 평화가 구현되더라도 자연과의 평화 구축에 실패함으로써 인류를 위험사회로 이끌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인간 사회와 자연의 유기적 관계성에 바탕을 둔 생태평화가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2세션인 ‘한반도 녹색평화의 실천과 과제’에서는 구갑우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김영윤 박사(통일연구원), 김영봉 원장(한반도발전연구원)이 각기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비핵화와 평화체제’,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남북경협과 대북지원’,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DMZ의 활용’을 주제로 하여 한반도 현안에서 녹색평화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를 제시하였다.

2세션 첫 발표자인 구갑우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는 북한 핵무장을 정치·군사적인 해석에 한정 짓는 것에서 나아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평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평화지향적 세력의 입지 약화 등에 주목하였다. 또한 남북한 교류에 있어서 녹색적 사유의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평화·복지 연합의 형성’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초라고 보았다.

김영윤 박사(통일연구원)는 발표를 통해 남북경협에 있어서 녹색평화 창출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대북개발자원을 기본 방향과 원칙으로 설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녹색평화를 구현하고 기여하기 위한 남북협력의 내용과 방법으로써 녹색평화 공존의 남북한 에너지 협력사업, 농업 및 임업분야에서의 녹색평화 창출 사업, 남북접경지역 평화협력 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세부 논의를 이어나갔다.

김영봉 원장(한반도발전연구원)은 녹색평화 시각에서 비무장 지대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자연친화적 국토이용 구상, 우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남북 공동이익 증진 사업의 우선적 추진,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이용 토지와 교통망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녹색평화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협력사업 구상을 제시하였다. 즉, 유네스코 DMZ생물권보전지역 조성, DMZ녹색평화생태공원 조성, DMZ녹색평화의 강 추진, DMZ녹색평화브리지 건설, DMZ녹색평화의 마을 조성이 그것이다.

통일평화연구소 3기를 맞으면서

그동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를 아껴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오연천 총장님과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교외의 여러 연구자 및 관련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구소의 창립 이래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정운찬, 이장무 전총장님과 서울대학교 동문들, 애정어린 비판을 보내주신 각계 각층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통일평화연구소가 이제 3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통일평화연구소가 짧은 시간에 학계의 안팎에서 비교적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평가받기에 이르게 된 데에는 서울대학교 ‘통일학평화학 연구지원사업’의 공헌이 매우 컸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교내외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전문지식을 21세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과제와 접목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이 학술사업을 관리하는 통일평화연구소로서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객관성과 전문성, 균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갖고 오늘까지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통일평화연구소장으로 한번 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연구소 설립을 책임진 초대소장으로 임명된 이래 지난 4년을 돌아보면 밖으로는 남북관계의 현실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안으로는 실사구시적이고 다학제적인 통일학의 기초를 만들어야 하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깊이있는 분석과 종합적인 담론이 요구되는 만큼이나 정책적 대립과 이념적 논란을 정교한 학술논의로 격상시킬 필요성이 컸던 때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과제인 만큼 냉철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연구과제들을 개발하고자 했고 단기적인 효과나 이념적 논란을 넘어설 수 있는 지적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주어진 과제에 비해 짧은 연륜과 제한된 역량 탓에 힘에 부친 적도 적지 않았습지만 기대한 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자부심도 부분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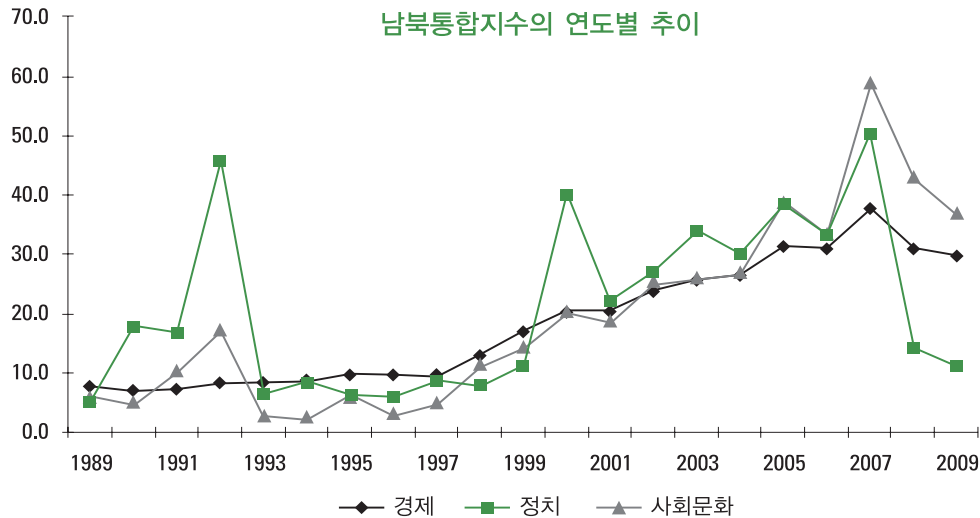
앞으로의 2년은 천안함 사건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계의 악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 비핵화를 위한 다자협력의 전망, 북한의 권력승계문제와 체제안정성 문제, 통일세 제안에서 보여지는 대북정책의 함의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미래를 ‘학술연구’만으로 대응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깊이있는 분석과 성찰적 논의에 전념하는 학계 없이 남북관계처럼 복잡한 미래를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점도 명약관화합니다. 이 귀중한 시기에 소장의 중책을 다시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여러분들의 성원과 조언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 지속적으로 격려와 비판,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 8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장 박명규

남북통합지수를 통해 본 남북관계의 현실과 전망



통일평화연구소는 2010년 8월 11일(수) 오전 10~12시에 서울 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남북통합지수를 통해 본 남북관계의 현실과 전망”의 제하에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남북통합지수는 남북관계를 통합의 큰 과정 속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것을 다시 정책에 피드백하는 틀로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소가 개발한 지수로써, 2007년부터 3년 연속 발표해오고 있다. 남북통합지수의 개발 및 연구는 박명규 소장의 책임 하에 경제학과 김병연 교수, 김병로 전임연구교수, 정은미 선임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2009남북통합지수의 결과를 발표할 뿐만 아니라 남북통합지수의 3년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계와 연구계 뿐만 아니라 언론 및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은미 박사는 2009 남북통합지수에 대한 종합분석과 함께, 2010년 지수 전망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2009년 남북통

합지수는 1,000점 기준에 198.6점으로, 2008년 212.2점에서 13.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남북통합지수 가운데 정치 분야의 통합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의 통합수준을 각각 2005년과 2007년 이전의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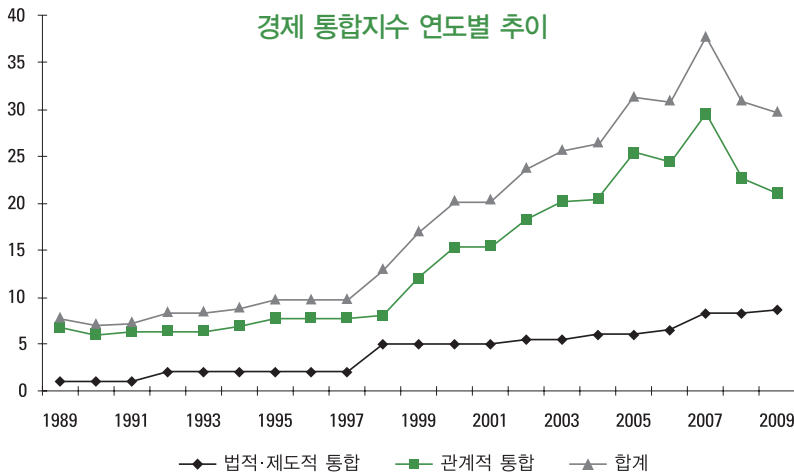
김병로 교수는 남북통합지수의 함의, 쟁점, 활용방안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김병로 교수는 경제영역의 이해관계 증대가 사회문화 교류와 정치적 협력을 증진시켰던 유럽연합의 경험과는 달리, 남북통합지수의 결과로 판단할 때 아직 남북한의 경제통합의 단계는 안정궤도에 들어서지 못하여 경제통합의 결과가 다른 분야로 미치는 스펀오버(spillover)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경제통합의 견인효과가 나타나려면 남북한 간의 상호의존도가 4단계 이상으로 긴밀해져서 통합이 후퇴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되어야 한다며, 제도통합의 중요성과 정치대화의 복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정영태 소장(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과 홍순직 수석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정영태 소장은 1992년과 2007년의 지수의 비교를 통해 통합의 단계가 순차적인 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가 동시에 수행될 때 통합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순직 연구위원은 남북통합지수의 정책적 활용성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통합이 정치와 사회문화 분야의 통합을 견인하고, 다시 정치와 사회문화 분야의 통합이 경제통합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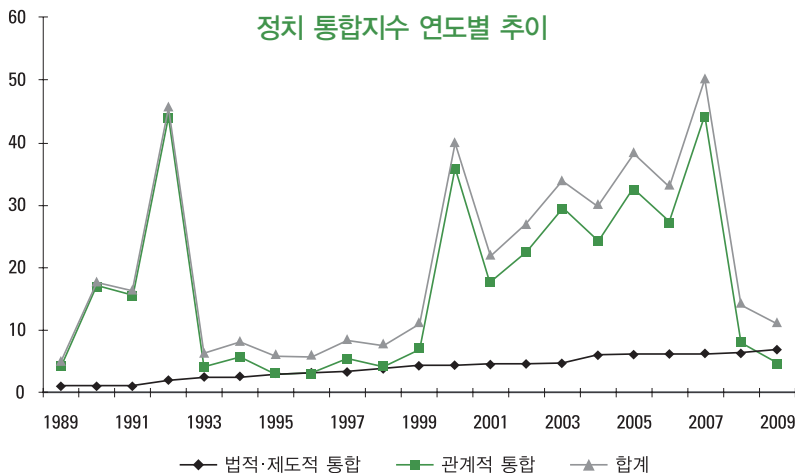
남북통합지수 영역별 추이

- 경제, 정치, 사회문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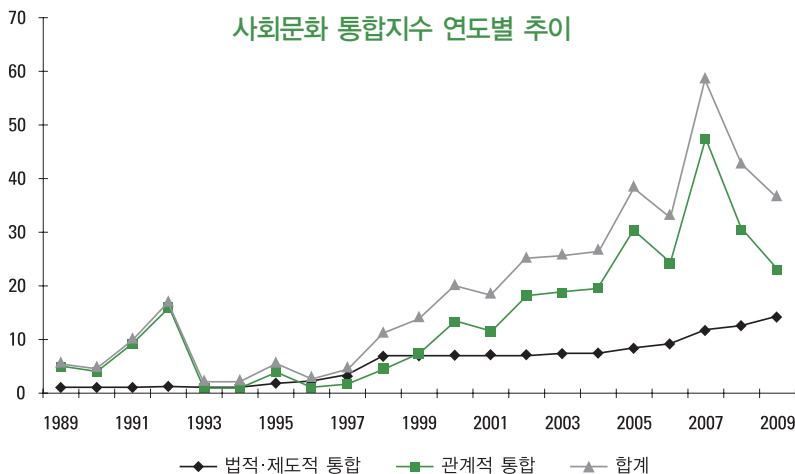
1989년부터 2009년까지 경제, 정치, 사회문화 각 영역별 남북통합지수의 추이는 아래와 같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통일평화연구소 홈페이지(<http://tongil.snu.ac.kr>)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년도 경제 영역의 남북통합지수는 2008년의 31.0점에서 2009년에는 29.8점으로 하락하였음. 이에 따라 경제영역의 통합단계는 2005년 이후 유지되었던 3단계의 통합수준에서 2단계로 하락하였음. (2단계는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높은 단계'를 의미하며, 3단계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를 의미함.)



2009년도 정치 영역의 남북통합지수는 2008년의 14.4점에서 11.3점으로 감소하였음. 정치영역의 통합단계는 1단계(11~20점)로 통합의 동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임. 또한 정치 분야 통합지수가 전반적인 남북통합지수의 하락과 상승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정치영역의 건인 효과 내지 선행효과가 큰 것으로 보임.



2009년 사회문화 제도·관계 통합지수 37.0점은 2008년 43.1점에 비해 6.1점이 감소한 것으로 2년 만에 다시 3단계에서 2단계로 떨어짐. (제도적 통합지수 14.2점과 관계적 통합지수 22.8점을 합하여 최종적으로 2009년 사회문화 통합지수는 37.0점임. 이 수치는 단계별 배점 기준에 따라 2단계(21~40점)에 해당함.)

천안함 이후의 남북관계 전망



연구소는 7월 5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박명규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학술회의에는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최강(외교안보연구원), 차두현(한국국방연구원), 이승환(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장용훈(연합뉴스 기자)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고, 지정토론자로는 신범식(서울대 외교학과), 정근식(서울대 사회학과), 김범수(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전현준(통일연구원), 이지수(명지대 북한학과),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장(세종연구소), 김학성(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날의 학술회의에서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 책임소재, 정책적 대응, 향후전망, 국제정세 등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토론과 의견개진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 사건의 충격이 매우 크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건의 충격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 사건의 과정에서 비롯된 새로운 변화를 중요하게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함께 제기되었다. 미증유의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이후 5.24조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다양한 입장이 개진되었다. 국내정치적으로 천안함 이후 정국의 향방은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물론이고 향후 정권의 남북관계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최소한 현 남한 정부의 임기 내에서는 남북관계의 재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비관론과 일정한 냉각국면이 조성된 이후 대화 국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었다. 또 천안함 사건 이후의 출구 모색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나왔는데, 이번 8.15경축사에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대북메세지를 담는 것도 좋은 기회이지만 현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고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을 연계시키는 병행전략으로 전환하되 비핵화 진전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급하게는 대북인도지원을 통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학술회의에 특별히 참가한 미국의 한 교수는 천안함 사건은 기술적 합리성에 치중하다 정치적 합리성을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서를 정부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흥분시킨 오류를 범하였다고 지적하며, 국내 엘리트 정치를 어떻게 대중과 연결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경제)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와 한국경제학회는 2010년 7월 27일 13:30~18:30에 중앙대학교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에서 “북한(경제)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의 제하에 아래 일정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문제, 남북관계를 어떻게 경제학 연구와 경제정책논의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방법론적 어려움과 분과학적 무관심,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이 진술하게 논의되었다.

발표 1	남북 통일과 한국의 외교역량	전재성(서울대)
토론	정경영(가톨릭대), 우승지(경희대)	
발표 2	남북통일, 가능한가? 이로운가?	고일동(KDI)
토론	김용진(아주대), 김석진(KIET), 이혜정(중앙대 정외과)	
발표 3	북한 체제이행과 발전 전략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토론	장형수(한양대), 임강택(통일연구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제33차 통일학 세미나

독일통일과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_ 크리스티안 헤게머



통일평화연구소는 2010년 3월 8일(월) 오후 2~4시에 크리스티안 헤게머(Christian Hegemer) 한스 자이델 재단 본부 국제협력원 원장을 모시고 ‘독일통일과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의 제하에 제33차 통일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 헤게머 원장은 독일의 통일과정과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후 한국에서 교훈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는 독일통일 과정을 제도, 정치, 외교, 경제 등의 다차원적 시각에서 평가하였다. 헤게머 원장은 법률제도가 정치의 수준에서의 독일의 통합의 수준은 비교적 높은 반면에, 동서독 지역의 균형발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독일의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

주의가 남긴 사회심리적 유산과 ‘전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사회적인 규범 및 가치에 대한 공통된 이해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민주 시민교육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의 교훈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헤게머 원장은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의 창출, 민주주의의 다원성 및 민주국가의 기능에 관한 기본지식 수준의 제고 및 확산, 남한의 정치 및 사회문화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안적 모범사례 형성 등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민주시민교육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둘 것을 당부하였다.

제17차 통일정책포럼

중국의 관점에서 본 최근 한반도 정세 _ 유병호



통일평화연구소와 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은 2010년 4월 2일(금) 오후 4시~8시에 통일평화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중국 대련대 유병호 교수를 모시고 ‘중국의 관점에서 본 최근 한반도 정세’의 제하에 제17차 통일정책포럼을 공동개최하였다. 본 포럼에서 유병호 교수는 핵문제, 화해개혁 및 신의주 특구 등 최근의 북한 경제문제, 개혁개방 이슈 등 폭넓은 주제들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그는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대북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어진 자유질의응답에서는 본 행사에 참석한 여러 교수,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제6차 NGO 포럼

민간 대북정보의 생산과 해석 _ <민족21>과 <NK지식인연대>



통일평화연구소는 2010년 4월 13일(화) 11:00~13:00에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대형강의실에서 “민간 대북정보의 생산과 해석: 화폐개혁 사례를 중심으로”의 제하에 NGO 포럼을 개최하였다. 민간 대북 정보의 생산주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민족21』의 정창현 대표와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가 각기의 경험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모델과 방식, 또 시각을 발표하는 유익한 자리였다. 특히 화폐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 대북정보의 속성과 특징, 유용성 및 한계 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정창현 대표는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에 대한 정보입수 및 보도는 민간차원 대북정보 생산과 유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사례이자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민간 대북정보의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으로서 (1) 거시적(전국적, 정책적) 접근과 미시적(지역적, 현상적) 접근의 결합 필요성 (2) 정보제공자의 지위, 계층, 지역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3) 첩보와 문건의 정확성 검토 (4) 보수-진보의 시각을 떠나 정보의 교차 검증에 기반한 분석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김흥광 대표는 북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활동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1) 민간차원의 대북정보활동을 활성화 (2) 대북정보활동의 대상인 북한에 첨단 장비들을 반입 (3)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발표 세션에 이어서 진행된 자유질의응답에서는 본 포럼에 참석한 청중들과 발표자들 간에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제7차 NGO 포럼

개성병원과 남북협력의 미래 _ 김정용



통일평화연구소는 2010년 7월 21일 김정용 개성병원 원장을 초청하여 “개성병원과 남북협력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제7차 NGO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인도적 사업인 동시에 남북한 민간교류의 장으로서 그간 개성병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남북협력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인도에서 7년여 동안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 바 있는 김정용 원장은 2005년 12월 개성병원에서 봉사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국 의료사를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북한 의료진과 함께 협력해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좀더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민간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0년도 통일학·평화학 기초연구사업 과제선정

통일평화연구소에서는 지난 7월 14일 2010년도 통일학·평화학 기초연구사업 신청을 마감하고 심사를 거쳐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획/자유과제에 총 11과제(387,000,000원), 논문지원과제에 5과제(20,000,000원)가 선정되어 총 407,000,000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각각의 과제명은 아래와 같다.

선정 과제명

1. 기획/자유과제

- 민족통일과 다문화사회의 문제: 독일의 이민자와 유대인문제를 중심으로 (최윤영)
- 북한 후계구축 과정의 분석과 안정성 평가 (정근식 외 5)
- 분단영화를 통해 본 남북문제에 대한 감정구조 연구 (박명진 외 2)
- 해외 소재 북한 교육 관련 자료 DB 구축과 활용 (김기석 외 5)
-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한 한·미·일의 시각과 공동관여 방안 (이근 외 3)
- 통일사업 재정분석 (김병섭 외 1)
- 북한이탈청소년의 양심 및 도덕성 발달 (이순형 외 2)
- 북한이탈주민(세터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과 태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분석 (한경혜 외 1)
- 야생동물 계통분류 남북공동연구: 한반도 설치류 3종의 계통지리 및 집단구조 (이항 외 3)
- 남한에 정착한 북한의사의 의료전문직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일 후 남북한 의사인력 통합방안 모색 (박상민 외 1)
- 탈북자들에 대한 국내 치과의료 인력의 고정관념이 의료서비스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훈 외 1)

2. 논문지원과제

- Japan's Grand Strategy and the Two Koreas: The China Factor (김성철)
- 국사 교과서를 통해서 본 북한 이념교육의 변화와 남북 통합의 방향 (권성아)
- 정부주도의 통일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적 연구 (박균열)
- 동북아 안보레짐으로서의 6자회담의 가능성 (문병철)
- 북한의 여성과학자 유숙근 (김수연)

제7기 수료식 및 현장답사



사진1. 한겨레학교 앞에서(2010.6.19)

통일평화연구소의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인 통일아카데미 7기의 수료식이 5월 25일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통일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의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제고와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 하에 마련된 통일교육 사업이다. 이번 제7기 통일아카데미는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8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강의 및 토론, 영상물 시청, 현장학습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8주의 수업프로그램을 마친 후 수료식에서는 총 36명의 수강자 가운데 출석 우수생 27명에게 수료증이 발급되었다. 정규 수업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6월 19일(토)에는 현장학습체험의 일환으로 한겨레학교를 견학하였다.

한편 통일아카데미 수료생 중 16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아카데미에 대한 평가 설문 조사 결과 만족도 관련 문항에서 16명 모두 만족스럽다는 응답(매우 만족: 9명, 다소 만족 7명)을 해주어 통일아카데미에 대한 수료생들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처음 기대에 비교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만족 이상이 14명으로 수업 매뉴얼이 학생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일아카데미의 이수 시간이 짧아 10주차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 통일아카데미의 내용과 관련해서 통일 및 북한 연구나 지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16명이었으며, 강의 수준에 있어서는 '적당했다'가 13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해주었다.



사진2. 수료식에서(2010.5.25)

제7기 통일아카데미 강의 프로그램

회수	강의날짜	강의주제	강사
1주	4월 6일	(입학식) 분단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구상	김병로(통일평화연구소 전임연구교수)
2주	4월 13일	남북관계와 북한의 변화/ 역대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남북관계	남성욱(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3주	4월 20일	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체제	정성정(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4주	4월 27일	한반도 평화체제와 국제관계	이상신(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5주	5월 4일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김남식(현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6주	5월 11일	새터민의 건강 현황과 보건의료 개선 방안	박상민(서울대학교 가정의학실 교수)
7주	5월 18일	대북지원활동의 생생이야기: 대북지원NGO가 만난 북녘사람과 북녘사회	김이경(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8주	5월 25일	(수료식) 21세기 한반도 미래구상과 통일론	박명규(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통일과 평화』 2집 1호



통일평화연구소가 매년 2회 펴내는 저널 『통일과 평화』의 2집 1호가 지난 6월 22일 발행되었다. 통권3호를 맞는 이번 호 저널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녹색평화’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특집논문 세 편을 싣고 있다. 구갑우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의 “녹색평화국가론과 한반도 평화체제,” 김영윤 박사(통일연구원)의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남북경협과 대북지원,” 김영봉 원장(한반도발전연구원)은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DMZ의 활용”의 세 편의 논문들은 녹색평화의 시각을 다양한 영역에 적용시키는 시도들이다. 한편 일반연구논문으로는 최영진 교수(고려대학교)의 “아시아 체제이행 국가의 경험이 북한농업에 주는 함의”를, 이현경 교수(동아대학교)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한 전망” 두 편이 실렸다. 그리고 서평으로는 김진환 교수(건국대학교)의 “대결의 시대에 추억하는 화해의 노력”이 실렸다. 이번호에 실린 논문과 서평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http://tongil.snu.ac.kr>)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통일아카데미 제8기 수강생 모집 안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통일아카데미〉과정 제8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대 상: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교 대학(원)생 (타교생 신청 가능, 단 본교생 우선)
- 접수기간: 2010. 9. 1(수) ~ 9. 30(목) 오후 5시
- 교육기간: 2010. 10. 5(화) ~ 11. 23(화), 매주 화요일 19:00~21:00 (총 8회)
- 교육장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세미나실
- 접수 방법 및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tongil.snu.ac.kr)에 공지하겠습니다.

회수	강의날짜	강의주제	강사
1주	10월 5일	(입학식) 분단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 구상	김병로(통일평화연구소 전임연구교수)
2주	10월 12일	남북관계 이대로 괜찮은가-대북정책 평가와 해법 모색	고경빈(서울사이버대 대우교수, 전 통일부 국장)
3주	10월 19일	북한의 권력체제와 후계문제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4주	10월 26일	국제관계적 시각에서 본 한반도 문제	이 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5주	11월 2일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본 남북교류협력	신동호(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사무총장)
6주	11월 9일	현장으로부터 듣는 생생이야기-개성공단의 현황과 전망	유동옥(개성공업지구책임자회의 회장, (주)대화연료펌프 회장)
7주	11월 16일	새터민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통일미래	박정란(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8주	11월 23일	(수료식) 다문화시대의 양성복합통일론	박명규(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통일평화연구소 연구지원 발간물 목록

1. 통일학신서

『북한의 가뭄 특성 분석 및 가뭄우심지도 작성』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북한의 체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탈북민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통일이후의 문학교육』

2. 통일학연구총서

『남북통합지수, 1989-2007』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 1』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 2』
『북한 산업개발 및 남북협력방안』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탈북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통일한국의 어린이 영양』

3. 통일학연구

『2007 통일의식조사』
『2008 통일의식조사』
『2009 통일의식조사』

『남북통합지수 개방을 위한 기초연구』
『북한-중국간 사회 경제적 연결망의 구조』
『연성복합통일론』

The Data Atlas of North Korea: Demography, Society, Economy

4. 연구소 저널

『통일과 평화』 창간호(1집 1호)
『통일과 평화』 통권 2호(1집 2호)
『통일과 평화』 통권 3호(2집 1호)

제29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대학사회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통일정책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통일부·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공동 주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주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후원으로 「제29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2010.6~8)를 실시하였다.

본 공모전은 최우수1편, 우수4편, 장려6편의 총 11편을 시상하며, 총 상금규모는 2,300만원으로 규모에 있어서도 큰 행사로 기획이 되었다. 특히 본 공모전에서는 ① 미래지향적 통일 비전 모색 ② 녹색 한반도 실현 방안 ③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 관계 개선 방안 ④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방안 ⑤ 통일대비 통일교육 발전 방향의 다섯 가지 주제에 관한 다양하고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많은 논문들이 제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접수는 8월 31일(화)까지이며 9월~10월 논문심사를 거쳐 최종결과발표는 오는 10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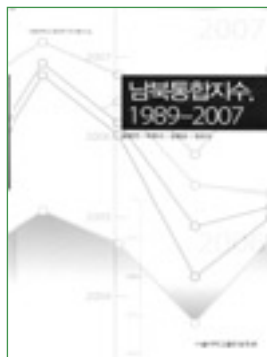
통일평화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주관 사업 신청서 제출

통일평화연구소는 지난 5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0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 (인문분야)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8월 말경에 1차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본 연구소의 연구진은 외부 연구인력과 함께 2010년도 인문사회연구 역량강화사업인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 (SSK: Social Science Korea)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SSK의 1차 심사를 통과하여 지난 8월 9일에 면접을 치른 상태이다.

'2010 통일의식조사' 분석자료 (2010.8.17)

통일평화연구소는 지난 8월 17일 연구소 자체과제로서 올해 까지 4년 간 진행해오고 있는 '통일의식조사'의 올해 조사 결과의 일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보도자료로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현실 주의적 접근태도가 뚜렷이 나타난 사실을 토대로 이중적 국민의식의 흐름에 대응하는 통일방안 준비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의식과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에의 열망, 그리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결과 역시 함께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서는 이상의 국민통일의식을 토대로 정부의 지난 8.15구상이 힘을 받기 위한 제언도 반영되었다. 즉, 통일의 '과정'에 대한 현실 주의적 접근 필요, 양면성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정책의 필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의 필요를 제안하였다. 한편 본 연구소의 보도자료는 신문사, 방송사, 온라인 매체 등 언론매체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보도자료 전문은 본 연구소의 홈페이지(<http://tongil.snu.ac.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북통합지수, 1989~2007』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본 연구소 소속의 연구진(김병연, 박명규, 김병로, 정은미)이 공동집필한 『남북통합지수, 1989~2007』(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이 대한민국학술원의 2010년도 사회과학 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남북통합지수'는 남북관계를 통합의 큰 과정 속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것을 다시 정책에 피드백하는 틀로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소 연구진이 개발한 지수이다.

2010년도 하반기 일정 안내

- **국내학술회의 '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
 - 일시: 2010. 9. 7(화) 14:00~16:00
 - 장소: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 주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 **국제학술회의 '독일 통일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 일시: 2010. 10. 4(월) 09:30~18:00
 -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 주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법무부, 한스자이텔
- **국내학술회의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정책 및 발전방안 모색'**
 - 일시: 2010. 10. 21(목) 13:00~17:00
 - 장소: 국회헌정기념관
 - 주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열매나눔재단, 국회인권포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 **국내학술회의 '한국사회변동과 남북관계'**
 - 일시: 11월 중 개최 예정
 - 주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연구원, 북한사회문화학회
-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엄**
 - 일시: 11월 말 혹은 12월 초 예정
 - 주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통일평화연구소 연구원 동정

- 박명규 소장(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국민·인민·시민』(도서출판 소하, 2009), 대한민국의학술원의 2010년도 사회과학 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 박명규 소장은 유럽과 북한관계를 다룬 영문 책자 *Europe-North Korea: Between Humanitarian and Business?* (LIT Press, Germany)를 B.Seliger, 박성조 교수와 함께 편집 출간(2010.5).
- 박명규 소장, 유럽연합, 헬싱키대 주최 국제학술회("Concepts and the New Global History", 2010년 3월 27일~29일)에 참석.
- 박명규 소장, 중국 대련대학에서 개최된 국제 워크숍 (한반도정세와 동북아)에 참석하여 중국 및 일본학자들과 남북관계에 대한 회의 주제.
- 박명규 소장, 홍콩에서 개최된 국제 심포지엄("Regional Peace Buil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에 참석하여 "Issues and Prospects in Inter-Korean Relation"를 발표.(2010년 6월 9일~12일)
- 박명규 소장, 베트남 사회과학원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연구원과의 공동 워크숍(베트남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참석.
- 김병연 통일평화연구소 부소장, 한국연구재단이 선발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2010년도 우수학자로 선정되어 향후 5년 동안 "체제이행과 북한 경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게 됨.
- 이철수 법대 교수(통일평화연구소 대외협력실장)는 지난 3월 통일부 개성법률자문회의의 위원장에 연임되었고, 7월에는 한국노사관계학회 제 21대 학회장에 취임하였음.
- 신성호 국제대학원 교수(통일평화연구소 평화연구실장)는 2009년 8월~2010년 7월까지 미국 부르킹스연구소와 East-West Center 객원연구원을 수행하고 귀국.
- 정은미 선임연구원, 한국연구재단 2010년 인문사회역량 기초연구지원사업 단독연구과제에 "북한사회의 개방화 수준과 사회관계망의 변화" 선정.

해외교류 및 방문

- 2010년 3월 24일 일본 오사카에 소재한 코리아국제중고등학교의 엄창준 부교장과 학생들이 본 연구소 방문하여, 연구소를 둘러보고 본 연구소 연구자들과 자유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2010년 7월 7일 규장각 한국학 여름학교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본 연구소를 방문하여 남북 이슈 토론을 진행하였다.



연구조교 및 인턴

- 김성민(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연구조교 채용(2010.8.1)
- 김종웅(미 미시건대 석사과정) 인턴십(2010.5.13~2010.8.13)
- 정은영(미 브라운대 학부생) 인턴십(2010.6.21~2010.8.6)
- 이진혁(인류학과 학부과정) 봉사장학생(2008.3.1~2010.8.31)

통일평화연구소 신임 운영위원 및 겸무연구원 위촉

• 운영위원

직 위	소 속	학 과	직 급	성 명	비 고
위원장	사회대	사회학과	교 수	박명규	소장
위 원	약 대	제약학과	교 수	이봉진	연구부처장
	사회대	경제학부	교 수	김병연	부소장 겸 통일연구실장
	국제대	국제학과부	교 수	신성호	평화연구실장
	의 대	의사학교실	교 수	황상익	과제관리실장
	사회대	정치학과	조교수	권형기	자료관리·출판실장
	법 대	법 학	교 수	이철수	대외협력실장
	인문대	국어국문	교 수	권영민	
	사회대	정치학과	교 수	장달중	
	국제대	국제학과	부교수	박태균	
	농생대	농경제사회	교 수	이태호	
	생활대	소비자아동	교 수	이순형	
	공 대	전기공학		이재홍	
	미 대	동양화	교 수	정형민	
이상 14명					

• 겸무연구원

소속대학	학 과(부)	직 급	성 명	소속대학	학 과(부)	직 급	성 명
인문대	국어국문	교 수	권영민	자연대	생명과학	부교수	이은주
		교 수	이현희	간호대	간 호	교 수	최명애
	독어독문	부교수	임홍배	경 영	경 영	교 수	곽수근
	철 학 과	부교수	정호근	공 대	전기공학	교 수	이재홍
	고고미술	교 수	김영나		컴퓨터공학	교 수	박근수
사회대	정 치	교 수	장달중	농생대	에너지·시스템	교 수	박형동
		조교수	권형기		농경제사회	교 수	이태호
	외 교	교 수	신욱희	미 대	산림과학부	교 수	윤여창
		교 수	윤영관		동양화	교 수	정형민
		교 수	하영선	법 대	법 학	교 수	성낙인
		부교수	전재성			교 수	이철수
	경 제	교 수	김병연			부교수	이근관
		교 수	이 근	사범대	교 육	교 수	김기석
	사 회	교 수	임현진	생활대	소비자아동	교 수	이순형
		교 수	장경섭	의 대	소아과학	교 수	신희영
		교 수	정근식		의사학	교 수	황상익
	인 류	교 수	김광억	행정대학원	행 정	부교수	권혁주
	사회복지	교 수	조흥식	국제대학원	국 제	부교수	박태균
	언론정보	교 수	강명구			부교수	신성호
	지 리	교 수	박삼옥	계 39명			

IPUS 신간안내



박명규·이근관·전재성 외 『연성복합통일론: 21세기 통일방안구상』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연구 7

2010. 3. 3

『연성복합통일론』은 21세기 현재의 상황에서 통일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사고의 틀, 관점의 문제를 새롭게 다듬음으로써 정책적 유연성과 구체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에서 출간된 저서이다. 이 연구가 강조하려는 논점은 한반도의 통일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일국가의 모습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여러 선택지가 있다는 점, 따라서 통일론 자체가 보다 유연하고 다원적인 형태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서는 한반도의 통일론은 단계적 과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연성적인 성격을 지녀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본 연구서는 이같은 시각을 염두에 두고 ‘연성복합통일론’을 새로운 통일론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것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이론과 쟁점,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연성복합통일론의 모색, 그리고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연성복합통일론이 갖는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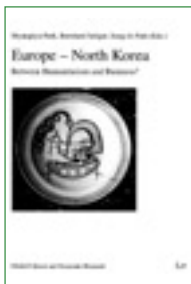


이연숙·윤지현·심재은·장수정, 『통일한국의 어린이 영양』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 7

2010. 4. 20

『통일한국의 어린이 영양』은 미래 통일한국의 주축이 될 남북한 어린이의 식생활과 영양문제 개선이 통일 전에 선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한다. 이에 남한과 북한 어린이의 영양 전망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선진외국의 영양정책을 검토하고 통일 독일의 관련 사례를 제시한다. 이 연구서에서는 최근까지의 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토대로 북한 어린이의 영양상태를 파악하고, 통일 후 미래 남북의 통합세대의 주체가 될 어린이들의 영양개선 문제는 통일 전에 선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첫째, 북한의 어린이의 영양건강문제와 영양관련 법령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남한의 그것들과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셋째, 세계 여러 나라의 영양정책 검토 및 통일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남, 북한 어린이의 영양문제의 전망과 대책을 제안함으로써, 통일 후 어린이 영양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Europe-North Korea: Between Humanitarian and Business?

LIT

Myungkyu Park, Bernhard Seliger, Sung-Jo Park (Eds.) LIT Press.

2010. 5.

3년전 통일평화연구소가 주최한 “유럽연합과 남북관계” 학술심포지엄에서의 발표와 토론이 계기가 되어 유럽과 북한의 관계를 다룬 연구책자 간행을 기획, 추진해왔다. 이번에 관련논문 11편이 수록된 [EU-North Korea] 책자가 박명규 통일평화연구소장, 젤리거 한스 자이텔 한국소장, 박성조 베를린대 교수의 공동편집으로 독일의 LIT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유럽연합과 유럽의 국가들은 북한과 독특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참고할만한 적지 않은 경험적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NGO의 역할분담,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차이,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신뢰구축을 놓치지 않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센터 설립에 참여하실 분에게는

- ▶ 10억원 이상 기부하실 경우 출연자 존함의 기금명(SNU○○○통일학연구기금)으로 체계적인 통일학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 초빙교수, 전문가육성 프로그램은 일정기간 소요비용(연간 약 6천만원) 만을 지원하실 수도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프로그램 명칭에 출연자 존함을 부여해 드립니다.

참여안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Tel. 02-880-5026, 871-8146 Fax. 02-872-4149 Web. <http://www.snu.or.kr>